

소녀들의 가출문화에 관한 현장기술지적 연구 - 일시, 도피적 가출을 중심으로

민 가 영*

소녀들의 가출기간동안의 경험에 대한 연구가 없는 상황에서 가출을 경험한 이들에 대해 한편으로는 단순히 '몸 버리는 경험'이라는 식의 낙인이 부여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성 산업으로의 유입이나 성폭력 등과 같은 '결과적' 위험만이 강조되는 논의만 존재해 왔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기존의 시각이 한시적인 대안으로 이어지면서 소녀들의 가출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한다. 따라서 소녀들의 가출문화연구를 통해 가출의 재생산 구조를 파악함으로써 이 문제 해결을 위한 토대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이제 가출의 문제는 극소수의 불량, 일탈 10대들의 문제라기보다는 달라진 생활세계와 생활환경 속에서 구성되는 10대들의 새로운 주체와, 문화에 관한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다. 가출은 어떤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으로서의 도피적 태도와, 그것에 대한 자치적 해결책으로서의 소모적 놀이라는 또래문화를 통해 일상적으로 준비되고 있다.

이들이 가출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선택하는 것은 이른바 '남성자원'으로서 가출시 새로 형성하게 된 남성들과의 관계(집단적 혹은 개별적)를 통해 그 기간을 지내게 된다. 인터넷을 통한 채팅과 길거리에서의 현팅은 가출시 생활유지방편이 되는 남자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 통로로서 일시, 도피적 가출생활을 구성하는 두 개의 큰 축이 되고 있다.

위와 같이 가출기간동안의 삶을 구성하는 두 개의 축을 기반으로 이들의 가출생활은 성별화된 과정이 되고 있다. 남자들을 통해 가출생활을 유지하면서 이들은 자신의 몸과 외모가 자본화되는 경험을 하고있다. 이러한 가출체험은 경험자들의 입 소문을 통해 다른 아이들에게 유포됨으로써 또래집단 내에서 재생산되는 매커니즘을 형성하고 있다.

I. 서론

1.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소녀들의 가출기간동안의 삶에 관한 연구가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가출기간동안의 경험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논의의 수준은 '순결을 상실한 미성년자로서의 몸 버리기 식'의 성폭력 혹은 성산업으로의 유입과 같은 '결과'적사건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이러한 시각에서 나온 대안들은 가출방지, 사후

*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원

건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이러한 시각에서 나온 대안들은 가출방지, 사후 대책 등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졌고 이것은 가출을 재생산시키는 구조 자체에 대한 대안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본 연구에서는 가출기간동안의 경험이 문제가 되는 지점은 단지 '눈에 드러나는 결과' 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관찰하고 있는 문화와 그 문화의 경험에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가출문화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출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이 있다.

모든 가출경험이 동일한 것은 아닐 것이다. 동기상에 따라 다양한 가출유형이 있고 유형마다 가출기간동안의 경험에는 약간씩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피, 소모적' 또래문화를 배경으로 등장하고 있는 '일시, 도피'적 가출유형을 문제화하고자 한다. 일시, 도피적 가출유형은 가족 내적 요인에 의한 탈출형, 방출형과 같은 유형과는 달리 특수한 시점의 사회적 조건 속에서 형성된 10대 일부의 '도피적, 소모적' 문화를 그 배경으로 하는 사회적 구성물로서의 특징을 지닌다. 소비자본주의의 본격적인 확산과 인터넷 등 정보매체의 대중적 보급은 10대들의 생활세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며 이것을 변화시키고 있다. 기성 세대적 규율과는 달리 이들을 극진하게 모시는 상업자본, 서로 다른 공간과 조건에 있는 10대들을 광범위하게 매개해 줄 수 있는 정보매체 등의 등장은 이들의 생활반경을 확장시키고 있다. 10대 생활세계의 변화모습은 10대 내부의 다양한 하위문화에 따라 각기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 '어떤 10대들'에게 새로운 환경적 조건은 집, 학교/바깥세계 사이의 경계 넘기(가출)를 보다 용이하게 해 주는 기제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실제로 적지 않은 수의 10대들이 이 경계 넘기를 대수롭지 않게 하고 있으며 많은 수의 아이들은 습관적으로 집이나 학교에 붙어있어 주기는 하지만 어떠한 계기만 주어진다면 언제든지 경계를 넘을 수 있는 '잠재적인 가출'상태'에 놓이게 된다. 극소수의 불량스러운 일탈적 10대나 불우한 개인사를 지닌 소수의 문제로 치부되기에 가출은 이제 단순한 '탈선적 문제'가 아니라 어떤 10대들의 생활반경과 생활방식에 관한 주체와 문화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러한 가출은 10대들을 묶어 두었던 틀에 균열을 가져오

1) 본 연구에서 가출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한다. 우선 기술적 의미에서 '여러가지 이유로 (비)의도적으로 24시간 이상 집, 혹은 일차적 거주지에 들어가지 않은 행위'로 정의하고자 한다. 두 번째로 분석적 의미에서는 '이들을 관찰하고 있는 기존의 질서에 대한 저항의 의미로서의 경계넘기'의 정의로 사용하고 있다.

면서 생활환경상의 변화를 가능케 하고 경계 넘기를 용이하게 하는 조건들의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가출로 이어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보다는 이제 더 이상 어른들이 정해놓은 1차적 공간이 그렇게까지 절대적인 의미를 차지하지 않게 되면서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대수롭지 않게 가출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이들 현재의 주체와 문화가 질문의 대상으로 놓여져야 할 때이다.

넓어진 생활반경 속에서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10대들은 자기들 스스로 생활과 문화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지만 이것의 내용은 대부분 기존의 연애각본이나 상업적 놀이를 들여온 채 이루어지고 있다. 도피, 소모적 문화는 주로 상업 자본에 의해 마련된 소비적 놀이와 이성관계를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도피, 일시적 가출경험도 위와 같은 10대문화의 연장선에 있지만 이것은 숙식해결이라는 가출의 맥락과 만나면서 특수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유형의 가출생활은 주로 숙식해결과 놀이/이성관계 간의 교환적 함수관계를 통해 유지된다. 놀이의 연장으로서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티다 들어갈 목적으로 잠시 집을 나온 소녀들은 집을 나와 굳이 일자리를 구하거나 어른들이 만들어놓은 컴퓨터나 사회복지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도 집 밖에서의 새로운 관계망의 형성을 통해 가출기간동안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은 흔히 가출한 10대 여자아이들에게 붙여지는 '몸 버리는 경험'이 아니라 어떤 식의 문화를 경험하고 학습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여성이 자신의 외모나 여성성, 여성으로서의 몸을 통해 사회적 자본이나 보상을 얻는 것은 개인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결국 소녀들로 하여금 여성성을 생존경쟁의 밑천으로 삼게 하면서 다른 생산적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잠재능력을 무화 시키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특히 10대 시절의 경험은 한 인간에게 있어 앞으로의 삶의 성격과 폭을 결정지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기이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일시, 도피적 가출을 경험한 소녀들의 가출문화를 살펴봄으로써 이들의 가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과 연구 대상

1) 연구 방법

우리 사회에서 가출이라는 경험은 주로 일탈, 비행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가

출을 경험한 이들은 일탈자, 비행/불량 청소년으로서 취급되고 있다. 가출과 가출자에 대한 사회의 지배적인 시각은 이들로 하여금 자신의 경험이 어떤 식으로 해석되고 있는지를 간파하게 한다. 이러한 간파는 자신의 경험을 타인에게 드러내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데 주로 자신의 경험을 감추거나, 축소, 변질된 형태로 드러내게 한다. 비단 가출이라는 영역뿐만 아니라 일탈 경험에 대한 연구는 대상자의 솔직한 정보제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특성으로 인해 어떠한 연구방법을 사용하는지가 연구의 객관성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나 선행연구가 없는 상태에서 그 문제의 이면에 깔린 매커니즘을 드러내야 하는 경우 미리 문제를 설명할 요인들을 제한 짓고 그것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반응을 양화하여 표면적인 상관관계를 드러내는 방식은 설명의 가능성을 많은 부분 제한할 수 있다.

연구대상이 사회적으로 일탈집단으로서 의미화되고 있다는 점과 선행연구 없이 이면의 매커니즘을 드러내야 하는 연구의 특성에 기반해서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방법을 택하였고 그 중 비구조화된 심층면접법을 사용하였다. 그들의 경험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초기 질문의 구성은 아주 간단한 몇 가지로 이루어졌다. 인터뷰가 진행되어 가면서 질문이 새롭게 첨가, 삭제, 재구성되어갔고 인터뷰 질문은 마지막 인터뷰가 끝날 때까지 재구성되었다. 미리 완결된 형태의 질문을 통한 인터뷰가 아닌 연구과정을 통해 질문이 구성되어 가는 방법이 사용되었다.

인터뷰기간은 1999년 8월부터 2000년 3월까지 행해졌다. 가출경험이 있는 연구대상자를 만나기 위해 처음에는 10대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신촌 현대백화점 앞, 신촌 거북이공원, 이대앞 등)에서 무작위적으로 길거리 헌팅을 시도하였다. 이 지역은 쇼핑공간과 놀이공간이 함께 있어 10대들이 많이 찾는 곳이고 특히나 신촌 거북이공원과, 신촌 기차역 앞 공원 등은 밤 시간대에 가출한 아이들이 '죽치고' 시간을 때우면서 남자들과의 헌팅을 하기도 하는 곳이라는 또 다른 10대에게 얻은 정보를 통해 이 곳에서 가출경험이 있거나 현재 가출한 상태에 있는 10대를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시도하였다. 그리고 공원내의 화장실은 가출한 아이들의 소위 '길빵' (길거리 노숙) 장소로 이용될 수도 있다는 예상으로 이 지역을 중심으로 헌팅을 시도하였다. 헌팅시에는 본인의 신분을 밝히고 연구의 목적을 간략히 말한 뒤 양해를 얻어 근처 카페에 들어가 인터뷰를 하였다. 또한 가출10대들이 밤에 많이 모이는 곳으로 알려진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과 신촌 거북이공원의 특성을 이해하고자 밤 시간대를 직접 참여관찰 하기도 했다. 이 지역은 가출한 아이들이 모이는 단순한

물리적 공간일 뿐만 아니라 아이들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가출-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는 공간으로서의 특징을 보여 주었는데 이 곳에서는 가출한 여자아이들 사이에서 이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정보들이 공유, 전달되고 있었다. 즉, 이 공간에서는 처음 만난 가출자들 간에 일시적인 가출 커뮤니티가 형성되면서 가출생활에 대한 기술, 노하우들이 전수되는 가출하위문화가 형성되기도 하는 셈이다.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2회에 걸쳐 이 지역에 있으면서 즉석에서 짤막하게 인터뷰를 하거나 긴시간 인터뷰를 할 수 있는 대상을 구하기도 하고 공원의 밤 풍경을 지켜볼 수 있었는데 늦은 밤 시간대까지 이 곳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대개가 대학로에 거의 매일 나와 죽치고 앉아 시간을 때우는 사람들이었으므로 그들을 통해 대학로 공원의 숨은 이야기들-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공원내의 위계질서, 성적 거래공간으로서의 성격, 눈에 보이지 않게 존재하는 중간 매개자들 등-을 많이 접할 수 있었다.

그러나 헌팅이나 길거리 참여관찰 방법은 만남의 지속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연구문제에 적당한 유형자를 만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보조적인 방법으로 남겨두었다. 안정적인 만남을 위해 교사와 쉼터, 시설 관계자로부터 10대를 소개받는 방식을 취하기 시작했다. 일시적이고 도피적 가출유형은 쉼터나 시설보다는 학교에 다니고 있는 10대들에게 많이 발견되는 현상이었다. 그래서 주 연구대상자는 학교 교사를 통해 소개받는 10대로 정하고 쉼터나 시설의 10대들은 가출 유형의 전체적 지형도에 대한 감을 잡기 위해 보조적 대상으로 잡았다. 주 연구대상자는 시내 3개 중학교 학생부 선생님들을 찾아 뵙고 연구목적과 의의를 설명을 드린 뒤 소개받을 수 있었다. 쉼터나 시설에 있는 10대들은 주로 탈출형과 방출형 등의 만성화된 장기적 가출유형이 주로 있었고 외부 연구자에게 원칙적으로 인터뷰가 허용되지 않아서 집단상담과 성교육 자원봉사자 형식으로 일단 참여관찰부터 시작을 한 뒤 관계자의 허락으로 그 중 몇 명을 인터뷰할 수 있었다. 99년 9월부터 11월까지 '한국 여성의 집'에서 집단상담 조력자로 참여하면서 이곳의 아이들과 친해질 수 있었고 집단상담 과정의 참여 자체가 이들의 삶과 현재를 이해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도 했다. 집단상담이 끝난 뒤 2박3일간의 캠프기간동안 아이들과 개인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고, 이러한 과정은 후에 본격적인 인터뷰를 위해 질문을 구성하고 라포를 형성하는 과정이 되었다. 99년 3월부터 11월까지 서울 YMCA에서 실시하는 학교 성교육 교사로 활동하면서 YMCA 청소년 쉼터 실장의 허락으로 그곳의 10대를 인터뷰 할 수 있었다. 학교를 통해 소개받은 10대들의 가출경험이나 동기는 쉼터나 시설에서 만난 10대들과 차

별지점이 비교적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 속에서 본 연구가 보고자 하는 문화적 현상으로서의 일시, 도피적 가출을 유형화 시킬 수 있었다.

2)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사례	이름	나이	현재상황	가출동기	가출기간, 회수	집단규모	가출기간동안 숙식해결 방법
1	나희	14	중2 재학 /집에거주	또래간의 문제/놀고 싶은 욕구	2일-일주일 /4회	친구동반	*채팅/뽕뜰기/ 집에서 가지고 나간 돈
2	혜진	15	중3 재학 /집에거주	집에대한 불만/놀이	일주일 이내 /3회	친구동반	채팅/친구 남자친구의 도움 친구소개
3	지수	15	중3 /집에거주	집에대한 불만/놀이	10일 이내 /3회	친구동반 (윤정, 지수)	친구소개 자취남/채팅 /**길거리 노숙
4	수연	15	중3 /집에거주	교사의체벌/ 부모의 구속	일주일 이내/4회	친구동반/자 퇴한 친구와 함류	자퇴한 친구 자취방/원조교제 /뽕뜰기/길거리 노숙
5	미연	14	중2 /집에거주	부모의 구속 /놀이욕구	일주일이내 /3회	아는 언니 /학교 친구들 (영선, 선정)	채팅/대화방 통해 아는 오피들 /길거리노숙
6	영선	14	중2 /집에거주	부모의 구속 /놀이욕구	3일/1회	친구들 (미연, 선정)	앵벌이/길거리노 숙/채팅시도
7	선정	14	중2 /집에거주	부모의 구속	3일/1회	친구들 (미연, 영선)	미연과 동일
8	정인	15	중3 /집에거주	구속 /놀이욕구	10일/3회	친구들	콜라텍에서 아르바이트 /이곳에서 만난 남자들 자취방
9	영애	15	중3 /집에거주	.	3일-15일 /수회	친구들	길거리 노숙
10	진영	15	중3 /집에거주	.	일주일/1회	친구들	길거리 노숙

사례	이름	나이	현재상황	가출동기	가출기간, 회수	집단규모	가출기간동안 숙식해결 방법
11	지은	15	중3재학 /집에거주	.	일주일- 한달/3회	아는 언니들 /가출후 다른 그룹형성	단란주점 경리 /원조교제/채팅/ 가출후 사귀게된 오빠집
12	민경	15	중3재학 /집에거주	부모와의 갈등	일주일 이내/2회	먼저 나가있던 친구들과 합류/친구 동반	채팅/남자친구 의 도움
13	채영	15	집에서 쫓겨난 상태, 친구두명과 함께 방언어 나옴	놀이/1진으로 서 또래간의 발 넓히기	열흘이내 /5회	단독가출/ 친구동반	아르바이트(전 단지)/집에서 가지고 나온 돈/친구들 집
14	윤정	15	중3재학 /집에거주	부모와의 갈등, 구속	일주일 이내/2회	친구동반	채팅/피시방서 밤새기/친구 남자친구의 도움
15	해은	18	중3때 자퇴 /집과 썸터를 오가며 생활	아버지, 언니와의 갈등	3일-6개월 /10회	친구동반/단 독가출/가출 해서 새로 형성된 그룹	길거리노숙(대 학로)/원조교제 /썸터/길거리 현팅
16	수영	17	중3때 자퇴 /집에거주하 며 대학로 죽순이/올해 복학예정	놀이의 욕구	단기간 /반복적 /수회	친구동반	대학로 상주-앵벌이와 원조교제, 공원에서 밤새기
17	지혜	20	중1때 자퇴/대학로 죽순이/집이 없는 상태 이며 공원에 서 밤을 새거나 사우나에서 잠을해결	부모의 구속/놀이의 욕구	일시적 가출의 반복으로 만성화된 가출상태	친구동반	단란주점, 공장 등에서 일함 /대학로에 상주하면서 원조교제와 현팅으로 그날의 숙식 해결

사례	이름	나이	현재상황	가출동기	가출기간, 회수	집단규모	가출기간동안 숙식해결 방법
18	민희	17	인문계 고1 부모와 /집에거주	교사의 구속	열흘/1회	친구동반	미아리 사창가에서 일함
19	지원	17	사진을 전공하고 있으며 학교가 시간낭비라는 생각이 들어 자퇴한 상태이다. 부모님은 어렸을 때 이혼했고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살다가 자퇴하면서 방을 얻어독립했다. 몇 년뒤에 대학의 사진학과에 진학할 예정이며 현재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면서 사진공부와 교과목 공부를 함께 하고 있다.				
20	현수	16	중학교에 다니고 있고 '노는 아이'의 범주에 속해 있으며 아직까지 가출의 경험은 없는 '잠재적 가출자'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재 탕: 인터넷상에는 '하늘사랑' 등의 채팅방이 개설되어있는데 이들은 가출기간동안 채팅을 통해 잠 자리를 제공해주거나 같이 놀아주는 대신 돈을 제공해 줄 남자들을 구한다.

** 길거리노숙: 이들은 경찰의 단속이 심하지 않은 지역이나 장소등지에서 밤을 새거나 잠을 자기도 한다. 새벽시장이 열리고 늦은 시각까지 공연을 하는 의류도매시장이 밀집한 동대문 지역이나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은 가출한 이들이 밤을 새우거나 새우잠을 잘 수 있는 지역이다. 또한 공중화장실, 아파트 보일러실 계단이나 놀이터와 같이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외진 곳에서 잠을 해결하기도 한다.

사례1에서 사례11까지와 13, 15는 이 연구의 주된 연구대상인 도피적-일시적 가출유형에 해당하는 사례이고 12, 14는 다른 가출유형에 속하는 사례이다. 사례1, 2, 3, 4, 9, 10, 11은 해당학교의 학생부 소속 선생님을 통해 소개받아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그 중에서 몇 명을 통해 친구를 소개받는 snow-balling 방식으로 대상을 만났다. 사례6, 7은 사례5와 함께 가출했던 경우로 사례5를 통해 소개받았고 사례8은 사례4와 친한 친구로 사례8을 통해 소개받은 경우이다. 사례15는 연구자가 98년에 1년간 개인교습을 해 준 학생으로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전화와 만남을 통해 관계가 유지되던 경우이다. 사례12는 컴퓨터 입소된 경우인데 원칙적으로 컴퓨터에서는 외부 연구자의 인터뷰를 허락하지 않고 있으나 연구자가 99년 3월부터 11월까지 YMCA 성교육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던 도중 YMCA 청소년 컴퓨터 실장님을 통해 사례12에 대한 인터뷰를 허락받을 수 있었다. 사례13, 14는 연구자가 '매매춘 근절을 위한 한소리회'의 대학로 밤거리 이동상담에 참가하면서 대학로에서 직접 만나게된 경우이다. 사례13과 14는 일명 '대학로 죽순이' (대학로에 상주하는

아이들)에 해당되는데 13은 만성화된 장기적 가출상태이며 14는 학교를 자퇴하고 집에있는 상태로 거의 매일 밤 11시-12시경에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 나와서 그 다음날 새벽6시경까지 공원에서 놀며 시간을 보낸다. 이 둘은 대학로에서 만나 친해진 사이이다. 밤거리 이동상담을 하기전에 사전답사차 대학로를 찾았던 날 공원에서 남자들의 헌팅을 기다리고 있던 이들과 만나 인터뷰를 하게 되었다. 이동상담을 하던 날에는 공원에 나와있는 13을 다시 만날 수 있었는데 14는 일 자리를 구하러 지방에 내려간 상태라고 하였다. 사례19 역시 대학로 밤거리 이동상담을 하던 도중에 만났던 아이인데 녹음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잠시 대화를 나누었고 현재 가출이 아니라 집에서 인정해 준 '독립'의 형태로 따로 나와 살고 있는 경우로 보조사례에 넣었다. 사례20은 이대 앞 길거리에서 연구자가 무작위적으로 헌팅을 해서 만난 경우에 해당된다. 이대 앞은 10대들에게 좋은 쇼핑공간이자 놀이공간으로 자리잡고 있어 쉽게 많은 10대들을 접할 수 있는 곳이다. 친구와 함께 옷을 사고 돌아가던 현수는 가출 경험은 없었지만 집, 학교와 바깥세계 사이의 경계에서 소모적 놀이를 하는 경우로서 일종의 잠재적 가출의 상태에 놓여있다고 생각되어 보조사례에 넣었다.

기본적으로 인터뷰의 내용을 1차적인 자료로 채택하고 있지만 이 외에도 청소년과 관련된 TV 토론회 내용과 연구자가 직접 인터넷 채팅방에 들어가 10대들의 채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다운받은 채팅내용, 방개설내용 등을 보조적인 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3) 한국사회 10대 가출유형의 변화과정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가출유형은 '일시, 도피'적 가출이며 주 연구대상자들은 이 유형을 경험한 소녀들이 된다. 여기에서는 기존의 가출유형을 살펴보고, 국내 가출현상의 시대별 특성과 한국 근대화 과정과 청소년의 역사에 대한 조한혜정(1999)²⁾의 논의를 종합해서 이 연구에서 문제화 하고자 하는 가출유형을 맥락화 시키고자 한다.

특정한 시대의 가출유형은 그 시기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배경에 의해 구성된다. 따라서 가출유형은 어떠한 가출현상에 적용시키기 위해 미리 만들어

2) 조한혜정, 1999. "청소년 '문제'에서 청소년 '존재'에 대한 질문으로: 한국의 근대화와 '청소년의 주체 형성' 「『청소년』과 근대성」 연세대 청년문화센터 주최 토론회 발표문.

진 고정적 기준이라기 보다는 특정 맥락에서 발생한 가출현상들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새롭게 재구성되어야 하는 과정중의 기준으로 이해 될 수 있다. 즉, 가출유형화를 가능케 하는 기준은 시대적으로 특수한 조건들 속에서 맥락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가출유형에 의해 가출을 가능하게 하는 배경과 그에 대한 대안이 유형별로 다양하게 모색될 수 있으므로 유형화는 가출현상을 이해하는데 중요성을 가진다.

이 연구에서는 동기상으로는 도피적, 기간으로는 일시적 가출유형을 다루고자 한다. 한국사회 근대화 과정에 따른 청소년들의 사회적 배경의 변화와 관련시켜 시기별로 가출유형을 역사화 시켜봤을 때 일시, 도피적 가출유형은 어느 시점을 전후로 등장한 사회문화적 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

조한혜정(1999)의 논의를 통해 한국사회 근대화 과정에 따라 다르게 위치지워진 청소년들의 사회적 배경들을 살펴볼 수 있고 이것을 통해 각 시대별 동기에 따른 가출유형을 역사적으로 맥락화 시킬수 있다. 1960년을 전후로한 청소년의 삶을 주로 관찰한 것은 입시교육이나 부모와의 의사소통 불가능의 문제, 또래집단의 영향력 등 이라기보다는 경제적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시기의 학교와 학생신분의 의미는 오늘날과는 다른 식의 의미를 지닌다. 억압적이며 벗어나고 싶은 학교, 보호라는 이름의 통제와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로서의 학생이 아닌 선망의 대상으로서의 학교와 학생이 존재한다. 이 시대에 행운아는 자기를 상급학교에 보내줄 경제력을 가진 아버지나 잡다한 일을 시키지 않고 숙제를 하도록 배려하는 어머니를 가진 아이였다. 이 시기의 청소년은 학생과 학생에 속하지 못하는 주변적인 범주인 근로청소년으로 나누어진다.³⁾ 이 시기의 가출자들은 주로 취업을 위해 도시로 무작정 상경한 청소년들로 이루어진다.⁴⁾ 이 시기에도 가족내부의 문제, 학대 등이 가출의 하나의 원인이었을수도 있지만 주된 가출의 이유는 가난을 떨치고 생존과 성공을 위해 새로운 기회를 찾아 나서는 탈출형, 도시동경형 가출의 성격이 짙다고 볼 수 있다.

80년 들어서면서 거의 모든 청소년의 학생화가 이루어지고⁵⁾ 가출의 요인도 단순가출, 욕구불만, 또래집단의 충동 등으로 다양해지고 복잡성을 띠기 시작

3) 조한혜정(1999). 앞의 글.

4) 김향초(1998) 『가출청소년의 이해』 서울: 학지사

5) 1979년에 93.4%가 중학교에, 90.7%가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된다.(조한혜정:1999. 앞의 글)

한다.(김향초:1998) 다수가 학교에 다니는 것이 거의 사실화 되고 이 당시의 학교는 그 체제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대량으로 생산해 내는 기능을 수행하면서 폐쇄적이고 강압적이고 통제일변도의 성격을 띠게된다. 학교는 더 이상 선망의 대상이 아닌 빠져나오고 싶은 곳이 되기 시작하면서 도피적 유형의 가출이 전에 비해 증가하게 된다. 이 시기에 강압적인 학교와 가정에서 빠져나오는 소위 '불량청소년'으로 분류되던 이들은 존재했다. 하지만 90년대와 비교해 봤을 때 청소년들에게 기성세대가 부여한 학생이라는 정체성 그리고 학교, 가정이라는 공간 이외에 다른 식의 가능성이 부재했던 이유로 경계 넘기가 그다지 용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시기는 전 시기에 비해 가출의 동기가 복잡, 다양화 되는 시기로 볼 수 있다.

90년을 전후해서 본격적으로 진행된 소비자본주의는 청소년들에게 소비자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면서 청소년 만을 위한 상품, 놀이공간, 이야기꺼리를 제공하기 시작한다. 기성세대가 부여한 학생으로서의 정체성, 가정, 학교밖에서 이들은 자신들만의 분리적인 공간을 차지해가기 시작한다. pc와 internet의 보급은 서로다른 공간과 조건에 있는 청소년들을 광범위하게 매개해 주는 역할을 하게되고 또래집단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증가한다. 또한 주변부 노동력으로서의 청소년에 대한 수요는 이들의 생활반경을 확장시키는데 일조한다. 기성세대와의 의사소통 채널이 거의 상실된 상태에서 또래집단의 관계망을 확장시키는 기술적 조건과 그들을 위해 마련된 소비적 공간, 경제적 자립의 가능성은 이들로 하여금 학교와 가정/바깥 세계 사이의 경계넘기를 용이하게 하는 조건으로 작용한다. 이 시기를 즈음하여 증가하고 있는 교실이탈, 무단외출, 무단외박의 현상은 위와 같은 배경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도피적 유형의 가출은 위와 같은 현상의 연장선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문제화 하고자 하는 가출유형으로서의 일시, 도피적 가출은 위와 같은 90년을 전 후로한 특수한 사회적 조건에 의해 이전보다 가출의 가능성이 용이해진 '또래들을 기반으로 한 집단화된 경계 넘기'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이들 가출의 집단화된 특성은 가출기간동안의 생활을 특별한 방식으로 구성하는 배경이 된다.

II. 10대의 생활세계와 가출

가출을 단지 불우한 환경의 아이들이나 몇몇 극소수의 '불량' 청소년 문제로 국한시켜 놓은 채 안심하기에는 이미 가출은 새로운 지형으로 이동되고 있

으며 하나의 현상, 징후로서의 특징을 띠고 있다. 근대적인 훈육방식, 세대간 의사소통 채널의 상실, 찰나적 재미를 주는 소비자본의 놀이터, 새로운 관계망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는 인터넷의 물결 속에서 어떤 10대들은 한때 이들을 달래고 어르며 10대의 '현재'를 모두 유보시키고 저당잡힌 채 어른들이 마련해 놓은 길에 대한 정당성을 획득해 주던 '대학가면 다 된다'라는 식의 근거 없는 낙관론의 유효기간이 이미 지났음을 재빠르게 눈치채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눈치챈 이후의 이들이 선택하는 경로들이 기존의 시스템에 대한 생산적 저항이 아닌 소모적 저항⁶⁾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에 있다. 기존의 질서에 대해 '무시하기, 도망치기, 그리고 놀기'라는 일종의 저항방식을 취하면서 이들은 가정, 학교/바깥세계의 경계에서 위태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기성세대 혹은 그들 질서와의 소통을 포기하고 또래들과의 놀이터로 숨어드는 도피적이고 한편으로는 소모적인 이들의 저항문화를 통해 가출은 일상적으로 준비되어지며 어떠한 '계기'가 주어지기만 하면 언제든지 가출할 수 있는 잠재적 가출상태에 놓인 아이들이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문제시되어야 할 것은 가출을 야기시킨 계기적 사건 이라기 보다는 경계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아이들을 생산해 내는 모순적인 사회적 시스템들간의 충돌과, 이를 통해 형성되고 있는 이들의 '도피적' 주체에 관한 탐색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가출을 설명하고 이해하는데 있어 원인론적으로 접근되어오던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관점에 기반한 질문이 던져져야 함을 제시하면서 이들의 생활세계 속에서 가출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가출 준비시키는 10대의 생활세계

'가출 준비시키는 10대의 생활세계'란 10대들이 일상적으로 가출을 사전에도모하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것은 이들의 생활세계

6) 여기에서 '생산적', '소모적'이라는 개념 사용은 필자의 가치가 반영된 가치 개입적 개념이다. 필자는 십대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기획, 관리할 수 있는 자치능력이 현재의 입시위주의 교육문화에 의해 상당부분 꺾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부당하게 가해지는 통제구조에 대한 인식과 변화의 의지에 기반한 한 저항을 '생산적 저항'으로, 부당함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지만 그것의 대응방식이 또 다른 지배문화로의 유입으로 연결되는 것을 '소모적 저항'으로 의미화 하고자 한다.

를 통해 어떤 계기가 주어졌을 때 ‘쉽게’ 가출 할 수 있는 주체가 형성되고 있고 상당수의 ‘잠재적 가출자’들이 일상을 통해 양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일시, 도피적 가출의 동기와 가출생활의 배경으로 중요하게 설명되어야 하는 것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계기적 사건들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의 자극으로서 어떤 계기가 주어졌을 때 이들로 하여금 그 자극을 가출로 이어지게끔 하는 맥락으로서의 문화적 배경에 그 초점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그니까 난 그러지도 않았는데 솔직히 다 말하라고 그러고. 전 진짜 한 적 없다고 그랬는데요 선생님이 너 말고는 할 사람이 없다고 자꾸 그래서요 나중에는 할 수 없이 애들한테 말 들어가지구요 선생님한테 내가 한 식으로 얘기 하고. 이번 2학기 들어와서도 가출을 했었어요. 대학로에 있었거든요? 친구들이랑 같이 나갔다가 그때는 잠깐게 아니라 그냥 들어왔어요. 근데 그때도 제가 주동자라고 몰아 세우고. 아니라고 그래도 안 통하고. 나중에 결국 주동자 부모가 와가지고 애가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때 저보고 됐다고 그러고. <정인>

한번 문제아를 영원한 문제아로 만들어 버리는 낙인은 낙인의 대상이 되는 이들에게 자신이 회복 불가능의 상태에 놓여있음을 인식하게 하고 그것에 대한 나름의 자구책으로서 어른들에게 자신을 이해시키거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 대신에 문제를 회피하면서 다른 도피처로 이동해 버리는 방식을 선택하게 하면서 이들의 ‘도피적’ 저항문화 생산에 중요한 요소로 작동하고 있다.

아무리 사고를 쳤어도 한번 어긋난 애는 영원히 어긋난 애라는 고정관념으로 취급을 받으면서 이들은 더 이상 이야기해도 믿어주지도 않는 어른들과 소통해야 할 필요성을 상실하고 무시하기, 당신 네 들 따로 우리 따로 식의 분리하기, 어른들의 눈을 속여가며 노는 안심시키기 등의 ‘형식적 협상’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사회봉사 20일동안 갔거든요? 선생님이 컴퓨터로 뭘 썼는데 ‘불량 학생들’ 어찌고 써 있어요. 그냥 내 친구들인데 불량 학생이 아닌데 그런 생각 들었어요. 놀아두 좀 착하게 놀걸 하는 생각 들고. 놀긴 놀아두 속은 썩이지 말고 놀자. 나가서만 그렇게 놀지 보는데서 튀지는 말자. 안걸리게 노는 거. 학교 끝나고 와서 옷 다 갈아입고 나가서 놀다가 엄마 아빠 들어오시기 전에, 엄마 아빠 가게 나가시거든요? 그 전에 들어와서 방침소 다 해놓고 자고 있어요. 속이는거죠. 그러면 엄마 아빠는 ‘아 이제 애가 마음을 잡았구나’ 생각하는거고. 전에는 집에서 담배를 폈거든요? 지금은 나가서 피고 들어와요. 속이고 노는 거죠. 엄마 아빠는 맘 잡은줄 알고. 그게 더 편해요.

속이는 거죠? 엄마 아빠는 철 들었다고 생각하고. <정인>

10대에 대한 삶을 어른들이 획일적으로 기획, 관리하는 사이 이들은 스스로의 삶에 대한 책임권을 박탈당한 채 대신 그 자리에 도피, 소모적 놀이를 들여오고 있고 이것은 일시, 도피적 가출의 배경이 되고 있다. 무책임하고 참을성 없는 아이들이 있다기 보다는 가정, 학교/바깥세계 사이에 어정쩡하게 양 발을 하나씩 걸쳐게 하고 어떤 계기가 주어졌을 때 이동하게 만드는 조건들이 있는 것이다.

2. 가출생활 스케치

본 연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한 사례의 full-story를 싣고자 한다.

<지수 사례>

첫 가출에서 지수는 아는 언니가 소개시켜준 자취하는 남자의 집에 얹혀서 얼마간을 지냈다. 그 남자와는 사귀는 관계가 아니었으므로 그 집에 머무르는 게 편하지가 않았다. 어느날 그 자취남의 친구들이 자취방에 찾아왔고 그 중에 짱개를 하고 있는 한 명이 지수를 마음에 들어하자 자취남은 지수에게 그와 사귈 것을 요구한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에 놓여져 있으면서 그 남자 집에 얹혀살던 지수는 '어쩔수 없이' 그 짱개와 사귀게 된다. 그러면서 지수는 그 짱개가 자취하고 있는 집으로 옮겼다. 전에 자취남은 아무런 사이도 아니어서 밥을 얻어먹는 것도 집에서 잠을 자는 것도 모두 다 불편하고 어색했는데 이번에는 짱개가 알아서 챙겨주고 또 그와는 나름대로 형식상이나마 '사귀는' 관계라는 데에서 여러 가지 그의 물질적, 정서적 지원들이 편안하고 당연하게 생각됐다. 낮에는 그 집에서 자고 밤에 짱개가 일이 끝나고 돌아오면 밤 새 술을 마시거나 밤거리에서 오토바이 질주를 하곤 했다. 한 일주일정도를 그런 식으로 놀다가 집으로 들어오니 엄마 아빠의 간섭이 예전보다 한결 덜해진 것 같았다.

두 번째 가출은 지낼 거처도 정하지 않고 무작정 나갔다. 우선 되는데로 같이 나간 아이들과 돈을 모아 여관에 자리를 잡았다. 나와 있는 동안만큼은 재미있게 놀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다. 벼룩시장이나 생활정보지들을 뒤적이다 보니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가 하나도 없었다. 단란주점처럼 보이는 곳에 직접 전화를 걸어보기도 했지만 키가 너무 작다고 그

쪽에서 거절을 할 것 같아서 가보지는 못했다. 두 번째 가출은 있는 돈이 다 떨어질 때 까지만 버티다가 들어왔다.

세 번째 가출부터는 아르바이트를 찾아보려는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가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구멍가게 생기듯 갑자기 불어난 피시방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게된 채팅이라는 방법이 그것이다. 채팅을 하면 나이와 지역에 상관없이 다양한 남자들을 만날 수 있다. 보통 채팅을 통해 번개를 쳐서 만난 남자들은 거의 대부분 그 쪽에서 놀이비용을 다 부담했으므로 채팅은 돈 들이지 않고 남자를 만나 놀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됐다. 채팅이라는 수단을 알게 되면서 가출생활의 방식도 조금씩 달라졌다. 더 이상 아르바이트를 구하거나 집에서 돈을 가지고 나가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집을 나갔을 때 자신을 재워줄 수 있는 사람을 구한다고 대화방에 띄워놓기만 하면 엄청나게 많은 남자들이 접근을 해 왔다. 별별 사람이 다 접근을 했는데 되도록 자기와 나이가 비슷한 또래나 1-2살 많은 오빠를 만나고 싶었다. 나이 차가 너무 많이 나면 아무래도 재미있게 놀 수 없기 때문이다.

세 번째 가출은 함께 집을 나간 친구가 나가기 전에 채팅으로 알아놓은 남자들을 만나러 가는 것으로 시작됐다. 그 남자들이 있는 곳이 의정부였기 때문에 지수의 집이 있던 마포에서 의정부까지 이동을 했다. 지수와 친구는 그 남자들이 술을 마시고 있던 여관방으로 들어가 함께 술을 마시며 놀다가 서로가 취한 상태에서 즉석으로 파트너가 정해졌다. 거의 남자쪽에서 지정하는 식으로 결정이 되자 파트너가 정해진 사람끼리 다른 방으로 들어가 자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다음날 그들과 헤어지고 주변 피시방으로 들어갔다. 잘 곳을 제공해 주고 가출기간동안 자신들과 함께 놀 수 있는 남자들을 만나기 위해 채팅을 하기 시작했다. 채팅을 했을 때 안 좋은 점은 상대방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일단 만나보고 다른 사람을 구해 볼 여유가 있으면 잠깐 헤어진 뒤 채팅을 더 해보기로 했다. 채팅을 해서 의정부 근처에서 자취를 하는 남자를 만나기로 했다. 그 남자는 지수 보다 나이가 두 살 더 많고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집에서 따로 자취방을 얻어워서 나와 살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 남자 집으로 가니 역시 그 남자의 친구들 여러명이 함께 머무르고 있다. 그 사람들은 집에 살고 있지만 자주 이 집에서 지낸다고 했다. 지수의 친구는 그 사람들 중 한명과 사귀게 되었지만 지수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 그냥 지내기로 했다. 그러다가 지수는 그 집에서 집단 성폭력을 경험한다. 지수와 그의 친구가 함께 자고 있는 방에 남자아이들이 한명 씩 들어와서 자신만을 성폭행 했다. 지수의 친구는 그 집에서 사귀는 남자가 있어서 남자아

이들이 ‘건드리지’ 않은 것 같았다. 지수의 친구가 사귀고 있던 오빠에게 남자아이들을 말려달라고 부탁해 더 이상 그런 일은 없었다.

이런 식의 가출이 반복되면서 ‘이번에 나갔을 때 남자아이들이 또 그러면 어떡하나’ 같은 생각 자체가 점점 사라지게 되었다. 아예 그런 걱정까지 갈 생각 자체를 안 하게 되었다. 가출을 끝내고 돌아와서 친구들에게 그간의 일들을 이야기 해 주었다. 아이들에게 가출을 하려면 키스는 기본으로 해 주고 따먹힐(성폭행) 준비를 하고 나가라는 이야기를 덧붙였다. 듣고 있던 아이들이 자기는 다 ‘마음의 준비’가 됐다는 이야기를 한다.

III. 가출기간의 삶을 구성하는 두 개의 축

일시, 도피적 가출을 경험하는 소녀들의 가출생활은 일정한 패턴을 띠면서 이루어진다. 가출경험이 있는 연구대상자 18명중 15명에 해당되는 이들이 채팅과 헌팅을 통한 남성들과의 그룹형성을 통해 가출기간동의 생활을 유지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표 2: 속식해결의 방법

가출생활 유지방식	채팅	헌팅	친구통한 자취방 소개	성산업	기타 아르바이트	컴퓨터이용	총인원수 (중복응답)
명수	9	6	3	1	2	0	18

10대 일부 사이에서 채팅과 헌팅은 이들의 이성과의 놀이문화를 매개시켜 주는 일상적인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고 소모적 놀이문화가 일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10대 일부 범주 사이에서 이것은 흔한 일상으로 자리잡고 있다. 채팅과 헌팅은 어른들의 관찰을 떠나 자신들끼리 관계망을 형성하고 서로 간의 자원을 이동시키는 또래간의 영향력을 강화시켜주면서 이들의 도피적 놀이를 수월하게 해 주고 있고 이것은 가출을 해서 기존의 관계망과 자원이 기반이 없어진 상태에서도 이들의 생활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배경으로 연결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이들의 가출문화를 구성하고 있는 두 개의 축으로서 평상시 이들 내부에서 채팅이나 헌팅이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와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조건들이 이들의 가출생활 유지방식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채팅 : 가출시 잘 곳 마련을 위한 '자원'의 익명적 매개방식

최근 PC방의 보급으로 인해 이들 사이에 거의 일반화 되다시피한 인터넷을 통한 채팅은 기존의 시, 공간적 제한을 뛰어넘어 보다 넓은 범위의 또래들을 서로 연결시켜주고 만나게 해주는 창구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노는 아이들' 사이에서 인터넷과 pc통신 같은 정보매체는 주로 같이 만나서 놀 수 있는 상대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컴퓨터 주선자'로서 활용되기 시작하고 있고 이들에게 채팅은 on-line 상에서의 의미가 아닌 off-line에서의 만남을 위한 하나의 소개창구 같은 의미를 지닌다.

다음의 표는 10대들이 이성간 만남의 장으로서 가장 이용회수가 높은 lovehunter 라는 사이트(2000. 1. 12)의 대화방 방 개설 현황을 다운 받은 것으로서 10대들간에 채팅이 어떠한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표 3: 대화방 개설현황

방제(개설된 방 이름)	방 주제
우릴 유혹해 봐	남자만 환영, 나이는 15-17사이만
세곤 복고의 방	여기는 예비 중3, 예비고1까지만. 변태는 no 귀엽구 애교많은 남자
쿨쿨남남	울집에서 밤새 놀아 재워줄게
*나랑잘래?	나랑잘려면 들어와라 진짜 구라사절아무때나 콜텍시처럼 프하하
**후다왕!	여자만 와서(야한 말)할 사람 킬킬킬
디스플러스 인천	여기에 오면 같이 술 마셔야 되...그러니 조심 하도록 하하하

*까다: 성관계 하다

**후다: 성관계 경험이 많은 여성을 지칭하는 또래내 은어

남자아이들은 경우에 따라서 성관계 대상을 구하는 목적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놓고 있는 이들도 있고 자신의 집에서 재워준다는 간접적인 표현을 쓰는 아이들도 있다.

윤정: 노는 애들은 거의 채팅으로 만나요.

혜진: 방을 만들기도 하고 개네들이 먼저 데이트 신청을 하기도 해요. 윤정: 그냥 데이트 신청 왔습니다 이렇게 떠요. (그러면서 뭐래?)

윤정: 그냥 인사하구요 어디사냐고 물어보구요. (처음에 뭐 물어봐?)

혜진: 어디살어, 나이는 몇살 그런거 물어보구 뭐 개랑 나랑 말이 통하면 연락하고 만나고 놀고 (너랑 통하는 애들이 어떤 애들인데?)

혜진: 그냥 까진애들이요. (까진애들은 어떻게 구별해?)

혜진: 그냥 말하는 거랑, 생김새가 다 다르잖아요. 범생이들하고는. 말하는 투가 일단 다르잖아요. 모범생들은 좋게 말하구요. 모범생들은 어, 공부잘하냐 이런거 물어보고.

윤정: 모범생은 거의 존댓말로 하고. 공부, 학교 생활, 평균 이런거 물어보고. (그럼 까진애들은 어떻게 말해?)

윤정: 다 반말 하구요 어디사는지 연락처 같은거 물어보구요. 전화 통화 하구요.

혜진: 좀 야한 쪽으로 들어가요. 이런거 얘기해도 되나? 그니까 콩 몇번 까봤나, 키 스는 얼마나 해봤나, 뭐 몸매중에서, 몸무게 물어보구.

윤정: 몸매 물어보는데 장난 아니예요.

혜진: 그니까 말하는 투부터 달라요. <혜진, 윤정>

같이 놀 또래의 남자들을 만나기 위한 기대를 가지고 시도한 채팅에서 이들은 뜻하지 않은 남성들의 직접적인 교환적 성관계와 직면하게 된다.

채팅하다보면 다 변태요. (어떤데?) 너 학교에서 잘나가? 아니면 너 얼굴 이뻐? 이런거요. 몸매 죽이나? 그러길래 장난으로 몸매 죽인다고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너 나랑 한 판 하자고. 돈줄테니까 환판 하자고. 대학생도 그때 어떻게 나이를 속이고 들어왔었나봐요. 자기 대학생인데 너 나하고 자면 50만원 줄테니까 나하고 하재요. 50만원 줄테니까 하재요. 그래가지고 제가 무서워서 그냥 나와버렸어요. <나영>

즉, 이들은 나의 몸을 이용한 성적 실천이라는 것이 교환 가능한 것임을 알게되고 확인 받는 환경에 별 어렵지 않게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개인대 개인간의 직접적 만남이 가능해 지는 채팅이라는 환경은 이들로 하여금 가출 시 하나의 믿는 구석으로서 '남성자원'을 상징하게 한다. 돈 걱정 없이 놀 수 있는 상대를 구할 수 있는 채팅은 이들이 가출생활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연결된다. 이들은 가출 전에 이미 채팅을 기대하고 나가기도 하고 가출생활 중에 이런 방법을 터득하기도 한다.

채팅해 가지고 만나가지고 당일치기로 만나서. 개네들이 좀 멀더라도 같이 지낼 만 하면요 멀어도 무작정 찾아가는 거예요. 좀 멀어요. 하루만이라도 재워주는 애들은 다 되요. 그런 애들 만나서 괜찮으면요 계속 만나가지구 자주 재워주고. 또 무작정 찾아가서 마음에 들면 개네 집에서 같이 자구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헤어져요. 그러면 그 동네에서 다시 해요. 채팅을. 그래서 그 동네에서 다시 해서 만나구 그 집에서 자구. (두 번째 집 나갔을때는 첫 번보다 달라진게 좀 있어?) 다시 나갔을때요? 처음 보다는 재밌죠. (어떻게?) 어느정도는 이제 많이 알게 됐으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어느정도 알고. 두 번째 나갔을때는요 채팅도 많이 해 가지구요. 우선 채팅을 하면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니까 그런 걸로 해서 재워줄 수 있나고, 그런걸로 만나가지고. (그래서 개가 재워줬어?) 예. <지수>

이들이 가출상황에서 채팅을 통해 상대를 고르는 중요한 기준 속에서 가출 생활에 대한 이들의 기대를 볼 수 있다. 그 기대는 굳이 힘들여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서도 돈 걱정과 잘 곳 걱정 강박증 없이 또래 남성들과 재미있게 놀고 싶다는 바램이다.

(그럼 채팅으로 어떤 타입을 만나고 싶었어?) 그냥 자취하는 사람 아무나. 너무 나이 많으면 그러니까 나이적은 또래 만나서 그뻘려구. (이상한 사람 만나면 어떡해? 그건 걱정 안했어?) 예. (어떤 메모들 받았어?) 자기랑 폰섹하자 섹스하자 이런애도 있구요 그냥 잠만 재워준다는 사람도 있었구요. 뭐 얼굴은 이뻐야 되구 그런 애들도 있었어요. 자기 거시기는 크니까 오라고 자기 힘 좋다고.. 그냥 잠만 재워준다고 댄건 상관 없으니까 그러는 사람도 있고. 뭐 자기랑 살자, 이런 사람도 있구요. (근데 뭘 안다고 같이 살어?) 요새 다 그렇잖아요 한번 만나고 마음에 들면 뭐 같이 지네 방에서 같이 자구. (그래서 넌 어떤 애를 구하고 싶었어?) 그냥 잠만 재워줄 테니까 와서 자라. 빈방 있다. 와서 자라 뭐 한달에 만원 그런애들.<수연>

채팅은 단순히 가출 시에 남자 만나기의 통로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가출문화를 특정한 방식으로 형성하는 틀로 작용되고 있다.

2. 헌팅 : 가출생활을 위한 '자원'의 직접적 매개방식

채팅을 해서 같이 놀 남자아이들을 만나는 경우 주로 pc방이라는 공간을 거쳐야 하지만 헌팅을 통해 만날 기대를 갖는 경우는 또래들 사이에서 '헌팅지역'으로 통용되는 곳으로 직접 가서 배회하는 방법을 택한다. 아이들 사이에

서 헌팅 ‘당하기’ 좋은 곳으로 소문난 지역은 이대 앞 상점들 밀집 지역, 신촌 현대백화점 부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롯데월드 등이며 딱히 특정 지역이 아니더라도 카페, 노래방 등 이들이 노는 곳이면 어디에서라도 헌팅은 이루어질 수 있다.

가출 시 거리라는 공간은 채팅과 더불어 이들의 가출생활을 유지시키고 있는 중요한 방법들 중 하나인 헌팅이 이루어지는 곳이면서 다른 가출자들과 일시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되 가출에 필요한 정보, 노하우들이 전수, 공유되는 곳이 된다. 이들은 일상에서의 경험이나 또래 사이에서의 정보를 통해 이미 어느 지역에서 헌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고 있고 이 지역들은 가출을 했을 때 찾게될 만한 곳으로 자리잡는다.

대학로에 있을때 헌팅이 들어왔어요. 같이 놀구 아침 8시가 9시까지 놀고, 그니까 갈데 없으니까 가면 헌팅 들어올 거 같다 그래서 간 거예요. 대학로가 원래 헌팅 많이 들어와서 같이 노는데 잤아요. 그럴 생각으로 간 거예요. 스물 다섯인가 여섯(먹은 남자)이 와서 ‘저기요 심심하시면 같이 노실래요?’ 새벽 4시쯤 됐는데 계속 와서 그러는 거예요. 새벽 4시까지 저희들 끼리 있었어요. 계속 헌팅 들어오고 열 몇 번 들어왔어요. 근데 다 스물일곱. <정인>

대학로는 가출한 아이들의 밀집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단순히 놀기 위한 상대를 구하기 위해 찾는 이들도 있고 아예 대학로를 가출기간동안의 거주지역으로 삼는 아이도 있다. 두 경우 모두 헌팅은 생활을 유지하는데 주요한 수단이 된다. 지혜는(사례17) 1년 넘게 대학로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이인데 그만큼 대학로라는 공간의 생리를 잘 파악 하고 있었다. 연구자가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의 밤 시간 참여관찰을 하던 중 만났던 지혜는 만났을 당시에든 누군가로부터의 헌팅을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다. 지혜는 자신의 목적에 따라 헌팅의 대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단순히 끼니를 때울 목적이면 같이 술을 마시러 가서 안주로 배만 채운 뒤 나오기도 하고 나이트 같은 곳을 가고 싶은 날은 또래보다는 상대적으로 돈이 많은 아저씨들과 ‘놀기도’ 한다. 밤시간대를 직접 관찰해 본 마로니에 공원은 마치 공원-family를 형성하고 있는 듯 보였는데 밤 시간대에 나와 있던 많은 수의 사람들이 지나치면서 서로에게 인사를 건네고 안부를 묻는 등 상당수의 사람들이 서로를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대학로는 여성과 남성 사이의 헌팅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집을 나온 여자아이들 사이의 일시적인 가출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공간이기도 하

다. 이들 사이에서는 이 지역에 대한 정보, 집을 나온 상태에서 이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이 서로간에 공유되기도 한다. 지혜는 나이로 봤을때 '왕언니'로서의 위계도 있었지만 대학로의 생리를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곳에 처음 오는 멋모르는 나이 어린 동생들에게 '몸버리지 않으면서' 대학로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전수해 주기도 한다. 예를 들어 단지 그냥 놀려고 하는 상대와 같이 자려고 하는 상대를 구분하는 방법으로는 상대방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고 '오늘 같이 있고 싶다, ~~어디 가자'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는 사람은 될수록 피하는 것이 좋다고 일러 주기도 한다. 말하자면 대학로 공원내에서 여자아이들은 보이지 않게 이루어 지고 있는 서로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이들은 남성들과 '안전하게' 거래관계를 맺는 기술, 노하우 등을 전수받고 있는 셈이다.

대학로에서 이루어지는 헌팅은 헌팅을 하고 싶은 사람들끼리 알아서 맺어지는 경우가 대부분 이지만 더러는 공원에 놀러 나온 여자아이들 스스로가 헌팅을 이어주는 중간매개자 역할을 하기도 한다. 혜은이는 가출한 후 대학로에서 생활하다가 공원에 있던 언니들 두 명으로부터 아저씨를 소개 받기도 한다.

저같은 경우는요 대학로에서 아는 언니가 두 명 있었어요. (대학로 와서 알게된 언니?) 예. 그래가지고 그 언니한테 빌 붙어가지고 콜라도 사주고 라면도 사주구요. (그 언니는 어떤 언니들이야? 가출?) 예. (그 언니들은 뭐하는데 돈이 많아서 너 밥도 사주고 그래?) 그 뽕튀기 아저씨 있잖아요. 그 뽕튀기 아저씨가 돈 주나봐요. (왜?) 몰라요. 몰라요. 전...몰라요(웃음). 제가요 혼자 나와가지고 공원에서 자고 있는데요 그 언니들이 있는거예요. 그러다가 어느날이요 누구를 소개시켜준 거예요. 어떤 아저씨를요. 그래서 가만 있었죠. 어후 근데 되게 끈질긴 거예요 막 따라다니네요 같이 놀자구요. "싫어요 싫어요" 막 그러고. (몇살?) 한 3-40대 됐나? 그러구 막 따라다니다가요 한 점심때쯤 됐나? 아이스크림 두 개 사들구요 한손은 자기꺼 아이스크림 들구요 또 다른 한 손은요 제꺼 아이스크림 인가봐요(웃음) 계속 쫓아 다니는 거예요. (웃음) "아 후 저 아저씨 정말" 그러구 속으로 욕을 막 하고 있었는데요 딱 보니까 없드라구요. 갔나보다 그러구요 그냥 편하게 놀았어요.(근데 그 언니들은 왜 너를 아저씨하고 연결시켜줬지?) 그냥 저 하라구 나 하라고, 성관계 하라고 소개시켜 줬나봐요.(혜은)

놀이와 일종의 거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대학로는 자신이 놀이의 주체가 될 수도 있지만 마음만 먹으면 거래의 중간 매개자가 될 수도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

채팅이나 헌팅은 가출 파트너를 만나게 해주는 일종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이들의 가출생활을 특정한 방식으로 구성하는 축으로 작용하면서 그 안에서 어떤식의 가출문화를 경험하게 하는 배경이 된다.

IV. 가출문화의 성별화 과정

1. 가출생활의 유지방식 : '자본화' 되는 소녀의 몸과 외모

이들의 가출생활 유지의 방식은 이성관계를 기반으로 한 자본화된 몸이 매개되는 과정으로서의 특징을 나타낸다.

이들이 가출기간동안 자신의 생활을 유지시켜줄 상대로서 남자를 만나는 데에 가장 첫 번째로 직면하게 되는 사실은 교환 조건으로서의 여성 외모이다. 길거리에서 남자들에게 헌팅을 당하거나 채팅을 통해 번개로 만나 남성들과 집단을 형성하고 그들에 의해 잘 곳을 제공받는 것은 상대 남자들의 마음에 들만한 외모를 지니고 있어야 가능해 진다. 그리고 형성된 집단을 되도록 오랫동안 유지시킬 수 있는 매개체는 이들 사이에 '사귀는' 커플들이 나오는 것이 된다. 이 때 남자아이와 사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은 '예쁜' 외모를 지닌 여자아이이다. 별 다른 자원 없이 집을 나와 남성을 통해 가출생활을 유지하는 이들에게 '자원으로서의 여성외모'는 극화된 방식으로 경험된다.

가출의 경험이 한 두번 있거나 친구들을 통해 가출생활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아이들은 일종의 가출에 대한 준비와 계획으로서 '예쁜 여자아이'를 같이 데리고 나가기에 이른다.

저희가 나갈때는요 이쁜애들을 데리고 나가요. 남자애들 만날 때 자기보다 못생긴 애들 데리고 가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거 하나도 안좋아요. 그러면 우선은 놀기도 힘들죠. 남자 애들이요 어떤 식으로 하나면요 4명이 있어요. 한명만 이쁘면요 안놀아요. 개량만 놀면 되겠지 하는 생각도 안하구요 아예 안놀아요. 두명정도만 이쁘도 안놀구요. 애들 다 이빠야 놀아요. 나갈때는요 그래요. 그냥 보통 놀때랑 다르게 이쁜 애들이랑 나가게 되고. 4명인데 두명만 이쁘면 놀긴 놀아두요 나머지 두명이러은 안사귀어요. 사귀어도 못생긴 애들이랑만 사귀구요. 4명이 다 이쁘면 우선은 같이 놀 기회가 많아지죠. 우선은 계속 채팅을 할 필요가 없어지죠. 돈만 깨지잖아요. 한 3일 정도만 놀다가 또 바꾸고 그래야 되니까. 별로 안 좋아해두요 사귀자 그러면요 사귀어서 나쁜건 없으니깐요 얼굴이 그렇게 못생기지 않으면 그냥 사귀고. <지수>

평소 남자애들에게 인기 좋은 아이로 인정받은 지은이는 가출하려는 다른

아이들로부터 같이 나가자는 제안을 받는 위치에 있다.

애들 집 나갈 때 다 저랑 나갈려고 그래요. (왜?) (웃음) 모르겠어요. 저번에도 지인이하고 애들이 저 인기 짱이라고 남자애들한테 인기 좇나 많다고. 모르겠어요 가출할 때 저랑 같이 나가세요. 별로 안친한 애들두요. (집 나가도 얼굴이 되야 헌팅이 들어오나?) 당연하죠. 못생겼으면 남자애들이 쳐다 보지도 않아요. 그 중에 한명이라도 예쁜 애들이 있어야 놀아줘요. 한명도 예쁜 애가 없으면 재네 뭐냐 막 욕하면서 가버리고. 아무한테나 헌팅이 들어오는게 아니죠. (그래서 너랑 같이 나갈려는 거야?) (웃음) <지은>

이와 같이 가출 생활에서는 집단을 기반으로 한 자원제공과, '사귀기'라는 타이틀 하에 이루어지는 개인 관계를 통한 개별적 차원의 자원제공이 이루어진다. 이 때에 여성의 외모는 자원의 불평등한 조건이라는 상황을 타계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가출한 소녀들은 그 매커니즘을 간파하고 적극적으로 이용, 실천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별간의 비대칭적 권력관계가 이들을 포섭하는 과정이며 동시에 이들이 그 속으로 편입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가출 시 남자를 통해 잘 곳과 여타 자원을 제공받는 여자아이들은 그 대가로 자신의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상실한다.

지수는 '잘 곳'을 마련하기 위해 하는 채팅에서 다시 채워주겠다는 사람을 찾는 일은 번거롭기도 하고 돈도 드는 일이므로 웬만하면 '무조건 남자애들 하자는 식'으로 남자들이 요구하는 대로 맞추어 주는 것을 선택한다.

(그럼 처음 만나서 자기도 하고 그래?) 그건 저도 그랬어요. 그렇게 안하면요 남자애들도 좀 싫어하구요. 잠도 잘 안채워주니까요. 나가면요 무조건 남자애들 하자는 식이에요. 또 다른 애들 찾기가 쉽지가않으니까요. 마음에 드는 애들 찾기가 쉽지가않으니까요. 잘데가 없으니까. 갈데가 없으니까. 우선은 잘데가 있으니까요. 그런 이유에서 자게 한 거 일수도 있지만요 우선은 채워 주는게 어디예요 집 나갔을 때. <지수>

지수는 친구와 둘이 집을 나간 상태였고 상대 남자 그룹은 꽤 많은 수가 한 명의 자취 집에 몰려서 거주하는 상황에서 집단적인 성폭력을 경험한다.

같이 자자 그러는게 아니구요 저는 강제로 해본 적도 있어요. 강제로. 저는 잠을 자고 그 전날밤 거의 잠을 못 잤어요. 밤 새고 거의 하루종일 밤새고 그러니까요. 그

니까 잠을 못 잤어요. 잠을 못 잤어요. 그래 가지구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었어요. 초저녁부터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보니까 쇼파에서 자고 있었는데 거기가 일인용 쇼파였는데두요 누가 옆에 있는 거예요. 잠을 깨보니까 몸을 만지니까 잠이 깨잖아요. 아무리 깊이 들어있어도. 전 잠을 깬어요. 근데 그 남자애가 막 키스할라고 그러고 몸을 만지니까요 싫다고 막 계속 뺐는데 알지도 못하구 얼굴도 한 번 못 본 애였어요. 왜냐면 그 집 있다는 애 있죠. 자취방이 아니라 그러니까 거기 남자애들이 꽤 많이 와가지구요 못본 남자애도 같이 와가지구요 막 그렇게 할려구 그러니까요 저는 끝까지 안할려구 그랬는데요 힘이 세잖아요. 그리구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가지구요 그냥 강제로 옷 확 벗겨 가지구요 그랬구요 그래가지구요 전 강제로 당해본 적 있어요. 그니까요 한명 끝나면요 맘에 들지 않아두요 남자애들은요 그래요. 맘에 안들어두요 저녁되면 하구 싶으니까요, 밤이되면 하구 싶으니까 그니까 되게 막 씹창이 아닌 이상, 민망할 정도 애들이 아닌 이상 <한동안 말을 못 있다가> 하니까, 돌아, 돌아가면서 애들이 막 해요. 한명 끝나고 나면요 잠이 들어요 저는요. 그러면 잠이 깨면요 한참 뒤에 잠이 깨면요 또 옆에서 누가 찹찹대고 그래요. 집나가서 그건 정말. <지수>

혜진은 채팅을 통해 알게된 오빠와 가출생활을 함께 하게 되는데 혜진이는 이 오빠의 친구들에게 언제든지 성관계 해도 좋은 아이로 취급받기에 이른다.

진짜 황당한 거는요 제 친구랑 다른데서 잘려고 나왔는데 그 오빠(채팅한 오빠)랑 다른 오빠랑 있는거예요. 그러더니 한 오빠한테 '둘중에 마음에 드는애 잡아서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술을 마시러 가자고 해서 갔는데, 그 엑스 오빠랑 그 오빠랑 하는 말이 나도 할꺼니까 너도 맘에 드는 애 잡아서 하라고. 그러더니 한 오빠가 나를 선택한거야. 그래서 내가 왜 나 선택했냐고 나보다 이쁜 애들도 있는데 왜 나냐고 그랬더니 내가 좋대요. 나 말고 개네들은 다른 애들이랑 하기로 약속을 했다고. 황당해 가지구요 안한다고 막 울면서 그러니까 '너 맞추할래 그냥 할래' 남자는 원래 다 그런거라구 그냥 하자구. 나 그말 듣고 충격 받아가지고. 남자 진짜 못 믿어. (그 병원에 있던 이빨빠진 오빠는 물랐어? 그런거?) 물랐어요. 만약 알았으면 그 엑스오빠(채팅한 오빠)는 죽는거야. 술 막 취하게 한 다음에 여관방가서. 나 막 충격 받아가지고. 그 엑스 오빠가 입이 더러워요. 막 내 보지 찢어버린다고 그런식으로 말하고. 말 하는게 진짜 무서워요. 나머지 내 친구는 안했대요, 나만 한거야. 아침에 헤어졌어요 그냥. 그 다음에 병원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오빠가 어디 있었냐고. 애기 할려다가 관두고. (그럼 병원에 그냥 있지 왜 나갔어?) 있으면 옆에서 자야 되는데 병원에 있으면 자야돼. 나는 그 사람하고 자기 싫어서 나왔는데 그 오빠가 다른데서 재워준다고 나오라는 거야 자취방 있다고. 근데 알고 봤더니 여관 이었던거야. 그래가지구. 너무 황당해. 2만원 주던데요 하고 나니까 밥 먹으라고. <혜진>

가출한 상태에서 만나는 남자와의 관계는 여자가 경제적으로 불리한 상태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 속에서 10대 여자아이들은 자신의 몸, 외모를 자원화하는 방법을 경험하게 된다.

2. 가출문화로 재생산되는 가출체험

10대 여자아이들의 가출경험은 확대 재생산되는 구조를 갖는다. 일단 그 경험이 당사자의 몸에 기억된 채 지속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또한 또래간 정보이동으로 아이들 사이에서 간접경험을 통해 재생산되기도 한다.

(남자애들이 그럴거 다 생각하고 나가는 거야?) 조금은 알았었는데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 줄 알았어요. 막상 나가니깐요 처음만나서 사귀지도 않는데 막 하구요. 사귀지도 않는데. 두 번째에서도 했었어요. 두 번째에서도요 사귀지도 않는 남자애가 하자 그래서 했구요. 계속 나가다 보면요 그런 생각 아예 안해요. 그런 생각도 안하게 되고 그런 걱정도 안하게 되고 뻘하니깐요. 아 어떡하나 나가면 또 그럴 텐데 그런 생각도 안하게 되구요. 나가면 아이 나가자 그러구. 나가서 하자구 그러면 아 애네들은 하자고 하는 애들인가 보다 하자고 그러면 해야지 뭐. 처음엔 싫어 하죠. 당연히. 남자애들 진짜 끈질겨요. 정말 끈질겨요. 안 그런 애들 없어요. 진짜 끈질겨요. 끝까지 하자고 그래요. 계속 하자고 그래요. 그러구 안사귀는데도 얼굴만 되면요 웬만하면요 다 하게 되니까요. 다 잘생겼으면요.<지수>

이 사례는 반복되는 가출경험을 통해 연구대상이 변해가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어느 정도 처음에 예상은 하고 있었던 일이었지만 막상 처음 가출을 했을 때 ‘사귀지도 않는’ 상황에서 하게된 성관계는 충격적인 일이었다. 그러나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무감해지며 그런 생각, 걱정을 거치는 과정 자체가 사라진다. 변화의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그것이 불편한 일이라고 느끼는 것 자체가 생략되면서 거기에 무너지고 무감해 진다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여전히 부담스럽고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경험이지만 나름대로 그 순간을 버티는 노하우를 만들어 나가기도 한다.

(그러면 남자애들이라 같이 자거나 그럴 때 너는 어떤 생각들어?) 애랑 또 어떻게 하룻밤 지내나 이런 생각. (그러다 막상 할 때는?) 한번 해주자 그냥. 포기 포기 상태. 한두번 한것도 아니다. 그냥 해라. 개가 할 때쯤에는 그냥 자요. 그렇게 깊은

잠은 아니구 그냥 눈감고 있어요. 좀 괜찮게 생겼는데 하자고 하는 애들 있으면 그런 애들은 해도 괜찮다. 근데 처음에 하자고 하면요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사실.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남자애들 보면 어떤 생각들어?) 아무생각 안 들어요. 애들 다 그러니까. 제가 만나봤던 남자애들은 거의 다, 거의가 아니라 완전히 다 그랬어요. 다 그러니까 애들은 다 그런가 보다 해요. 학교 남자애들 말고는 딱 나가서 놀면 다 그러니까 애들 다 그런가 보다. <혜진>

이 처럼 아이들은 어떤 식의 기대치를 위해 원하지 않는 성적 실천에 익숙해지는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가출을 하는 아이들은 이미 가출한 이들의 경험담을 통해 간접체험을 한 상태에서 얼마간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나가기도 하고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직접 경험해 가면서 가출세계를 터득해 가기도 한다. 문제는 가출경험자들을 통해 아이들에게 유포되고 있는 언설들이 소녀들의 가출을 특정한 방식으로 재생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남자와의 교환적 관계를 통해 유지되는 가출생활에서 여자의 몸이 어떤 식으로 협상되고 있는지에 관해 들은 아이들은 소위 '따먹힐 준비'로서의 마음의 준비를 한 상태에서 나가게 된다.

(그런거는 물렸었어? 그런 일 있을 거라는거?) 생각 했는데 잠깐 이겠지 그랬는데 막으면 되겠지 그랬는데 힘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음에 집 나갈 때 제가 애들한테 '너 따먹어도 난 모른다.' 그러고, 애들이 나 믿고 나가는 거야. 그래서 '너 따먹어도 난 모른다' 그래도 애들이 '괜찮아.' 애들 막 다 따먹힐 준비를 다 해 놓고 나가. 하하하. (웃음). 진짜. <혜진>

여러번 집을 나가본 경험이 있는 혜진은 아이들에게 자신의 가출 경험을 이야기 해 주는 가출선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혜진의 경험담을 직접 들은 아이들은 전혀 모르는 남의 이야기도 아닌 바로 자신의 친구가 경험했다는 사실로 인해 '괜찮은'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이것은 두려움이나 거부감을 해소시키는 과정으로 이어진다. 이미 어떤 아이들은 나가기 전부터 가출 각본을 연습하고 익히고 나가고 있는 것이고 이들의 몸은 언제든지 교환 가능한 상태로 준비되어 지고 있는 것이다.

여자애들이요 다 마음가짐 하고 간다니까요. 남자애들 다 그런거 이미 딱 아니까. 뭘 원하는지 아니까. 애들 막 그래요. 다는 안가더라도 반 정도는 해 줘야겠다. 애들

한테, '키스는 그냥 기본으로 해 줘라' 그러고, 애들이 집 나갔다 들어오면 뭐했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다 얘기 해 주고 너도 키스는 기본이다. <지수>

이때의 성적 관계는 자신과 상대방의 즐거움을 위해 함께 '하는 것' 이 아니라 '해 주는 것' 으로 이들 사이에서 이야기되고 있다. 이것은 가출 시 경험되는 이들의 성적실천이 이들 내부에서 '대가성' 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을 보여 주며 이런 성격의 성적 실천은 또래간의 입을 통해 재생산되고 있다.

아이들은 가출을 하기 전 또래들의 정보유통을 통해서 혹은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언제든지 교환적 성적실천을 할 수 있는 몸으로 준비되고 있으며 가출경험을 거치면서 점점 그 상태에 길들여지거나 익숙해지는, '하면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고 있다.

V. 제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출을 사전에 막거나 가출한 이들을 조기에 발견해 집으로 돌려보내는 식의 대안을 적용하는 것이 가출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시점에 와 있다. 쉽거나 청소년들에게 가능한 아르바이트 이외에 이들에게는 가출기간동안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쉬운' 방안들이 존재한다. 여기에서는 현재 이들의 가출문화를 토대로 하여 10대 소녀들의 일시, 도피적 가출에 개입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다음의 두 가지를 제언하며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1) 가출 관련 학교정책(School policies)의 마련

일시 도피적 가출의 특성은 학교에 다니면서 단기적 가출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시, 도피적 가출에 대한 개입은 학교와 단절된 형태로서의 쉽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에서 핵심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학교와 외부적 프로그램이 긴밀하게 연결된 형태이다.

현재의 학교정책에서는 현재의 가출유형과 가출문화를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세부화된 형태의 정책이 존재하지 않는다. 돌아온 아이들을 근신, 정학, 혹은 이전퇴학 등의 형식으로 '방치' 하거나 '방출' 하는 것 이외의 학교에 의한 적극적 개입은 없는 실정이다.

여기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학교를 다니면서도 학교 밖의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출석일수와, 교과과정 이수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다. 미국의 Spectrum Youth & Family Services내의 Holmeless Education Project⁷⁾는 중등교육에서 탈락된 아이들을 위한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General Education Diploma(GED)를 위한 과정을 제공하는 것이다. 가출한 아이들이 자유롭게 갈 수 있는 소규모 공간들을 만들고, 거기에 학교와는 다르지만 이들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한 뒤 이들이 원할 때만 프로그램을 가동시키고, 그곳과 학교가 서로 연계되어 그곳에서의 생활을 학교출석으로 인정해 주는 방식이다.

2) 일시, 반복적 가출소녀를 위한 학교 밖 프로그램

일시, 도피적 가출소녀들에게 발견되는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스스로의 삶에 대해 '될대로 되라' 식으로 방관하며 일상을 소모하는데 있다. 앞으로의 인생에 대한 전체적인 설계와 준비를 해야 할 시기인 10대에 이들은 소모적인 놀이로 그때그때 '시간을 때우는' 식으로 일상을 채워가고 있다. 일시, 도피적 가출소녀들은 집이 없거나 부모에게서 방출되어 스스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아이들은 아니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대안적 프로그램은 직업교육이나 자립형 생활능력을 키워주는 것 혹은 장기간의 쉼터와는 다른 방향이어야 한다.

일단 가출에 대한 관점을 달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출은 무조건 막아야 하는 것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가출로 인해 야기되는 많은 부정적인 결과들을 생각해 봤을 때 가출은 가능한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당위'가 아이들의 '현실'을 앞지른다면 현재 벌어지고 있는 문제에 효과적으로 개입하지 못한 채 당위로만 끝날 수 있다. 현재 아이들의 가출이 놓여져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서 가출이 야기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들이 집과 학교를 벗어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싶다는 욕구와 가능성이 증가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봤을 때, 가출 방지보다는 오히려 가출을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잠시동안 집이나 학교를 떠나있고 싶은 경우 사전에 통보하고 돌아온 후에는 그간의 생활을 보고서 형식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형식으로 가출을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7) <http://bcn.boulder.co.us/human-social/agency/al38.htm>

이것은 아이들의 일시적 가출 시 최대의 문제인 '잘 곳'을 해결해 주면서, 가출이 소모적 방향으로 끝나는 것을 가능한 방지하는 목적을 지닌다. 집과 학교 이외에 아이들을 위한 또 하나의 사회적 공간을 마련해 가출을 공식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아이들의 가출이 소모적 방향을 넘어서 자기 자신과 자신의 삶에 대해 고민해 볼 시간과 공간의 확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성경(1997). 가출소녀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연구.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김일란, 김성희(2000). 가리봉동의 십대문화. 문화과학사 편, 일탈기록. 서울: 문화과학사.
- 엄기호(1998) 포르노문화를 통해 본 청소년 섹슈얼리티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장윤필화(1999) 여성, 몸, 성. 서울: 또하나의 문화.
- 조한혜정(1996). 학교를 거부하는 아이, 아이를 거부하는 사회. 서울: 또하나의 문화
- _____(1999). 청소년 '문제'에서 청소년 '존재'에 대한 질문으로: 한국의 근대화와 '청소년'의 주체형성. 청소년과 근대성, 21C 청소년과 함께 준비합시다 토론회 자료집
- 사이간 출판사 편(2000). 10대가 보인다. 서울: 사이간
- Hoigrd, C and Finstad, L(1992). *Back streets: prostitution, money and love*. New York: Polity Press
- Wolf, N. (1991). *Beauty myth: how images of beauty are against women*. New York: Anchor Books.
- Spectrum youth and Family Services:
<http://members.aol.com/Specpage/Spectrum.html>
-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internet related child exploitation:
<http://www.fbi.gov/library>
-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online enticement of children for sexual acts: <http://www.fbi.gov/library>
- 차성안(2000). 원조교제의 처벌: <http://www.supporters.or.kr/원조교제>

ABSTRACT

A Study on the runaway-culture of teen-age women - based on the 'Ilsi-dopijuk' runaway

Min, Ga-Young*

The existing arguments of runaway girl are focused on sexual danger such as rape and flow in sex industry. This study has a perspective of not result but process in experience during runaway. In this research, problem of runaway girls is becoming an issue as a process of producing social practice.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lsi-dopijuk runaway is a way of resistance against existing old generation system. A runaway is an issue of not small minority deviancy but of subject and culture constructed by teenager's new life-system. In disciplines of old generation and a culture of consumption, they makes 'a conventional negotiation' with old generation and a culture of resistance in peer group. A runaway is a representation of an escaping from hating day-life, culture, and paradigm.

Second, runaway girls have loosen the existing network and resources. In that context, a way of keeping runaway life is gendered. A runaway has meaning of resistance. At the same time, it supports another existing system of power, gender-system. Acquiring resources through man is chosen a way of keeping runaway life. Chatting in internet and hunting in a street can make them meet with man who gives money or space for a sleep. These factors are becoming basis for constructing experience of girls during runaway.

Third, these two factors(chatting and hunting) make experience during runaway gendered culture. A key for keeping runaway life is relationship with man mediated by capitalized body. In this process, appearance of girls is capitalized as means that is able to make relationship with man having

*researcher. KWDI

resources. And in a context of asymmetry with man in a condition, rights of negotiating girl's body is belong to man. Experiences of runaway life have been embodied and continued after stopping runaway life. The experiences has been made a discourse in peer group and reproduced as a runaway-culture.

This study offers the perspective of culture as a process for considering experiences during runaway. And in that context, making an alternative plan of runaway-culture has to be thought in a subject and culture mediated capitalized body.